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보도 언중위 제소

파주시는 뉴스핌에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사유는 뉴스핌에서 7월 18일, 7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해당 먹거리위원회 및 구성원, 파주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파주시 주장에 따르면 뉴스핌은 7월 18일 「[단독]파주시 먹거리위원회, 700억 예산 어디로 갔나」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먹거리위원회는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주시 안심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라 안심 먹거리 종합 계획 시행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된 심의·자문기관으로써 예산의 집행기관이 아니다.

또한, ‘2년여 기간 활동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실상 나몰라라 식의 태도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든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다.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시 안심먹거리위원회’는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며, 관련 예산집행 기관인 파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도 아닌 2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돌아보면 크던 작던 어떤 결과가

영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오리무중 상태를 그냥 둘 수 없다.’, ‘시민 세금 집행여부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되므로 파주시에 대해 시민이 직접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먹거리위원회 같은 공공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관련기사가 공개되기 전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별도로 없었으며, 파주시는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예산에 대해 당연히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관련 예산의 수립, 집행 현황 등은 파주시 누리집에 일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은 재정평가 등의 제도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5년 기한에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집행내역의 비공개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모습. (사진=독자 제공)

주시는 예산서 공개 등을 통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스핌 측은 이는 알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몰리기

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도록 건의할 것이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지적인 파주시의 행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행태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먹거리위원회 예산 의혹 기사의 내용을 파주시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더욱 뚝뚝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사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요구는 그대로 덮여질 수도 있을 문제를 되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역풍을 초래하는 결과를 자초한 어리석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뉴스핌 측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술처럼 정정 및 반론보도는 수용하면서도 파주시에서 은근슬쩍 집행하고 있는 먹거리위원회의 예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자체 기획보도팀 내에 ‘끝까지 판다’ 팀을 별도로 구성해 파주시민들의 혈세인 700억 원이 허투로 유용되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역시 시간 문제다.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있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파주시나 위원장이나 위원장마저도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2023년 반영된 계획에 따라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로컬푸드 등 농정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정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먹거리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참여해 공시할 권한과 책임은 없다.

그리고, ‘나몰라라 식의 태도’, ‘꿀먹은 병어리’,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끼리끼리 위원회 아니냐’라는 감정적이고 조롱조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해당 위원회 및 구성원, 나아가 파주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2일 「[기획]파주시 먹거리, 운영·예산 의혹 소지… 공개가 답이다」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먹거리위원회 운

“700억 예산 2년 사용내역 공개를” 보도 파주시, 설명 없이 기사 자체 문제 제기